

대·중소기업의 아름다운 동행, 상생형 스마트공장 우수사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멘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진화하는 대표적인 대·중소기업 상생사업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와 공동기획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과 우수 사례를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대·중기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한 덕분에 기업레벨 쑥 올라갔죠”

“인건비 상승으로 국내에서는 도저히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어 베트남 공장이전까지 고민해 시장조사까지 마쳤으나 스마트공장지원사업에 참여해 새로운 희망을 봤습니다.”

공장 이전 결심이 선 상황에서 2017년 우연히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알게됐다는 허문영 대표이사는 사업 신청 당시를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이었다고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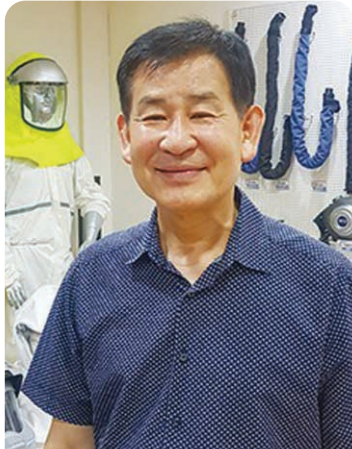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오토스는 보안경, 자동전자용접면 등 산업용 눈보호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주력제품인 자동전자용접면은 3M 등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해 1,2위를 다투며 뛰쳐나오고 있다.

또한, 회사이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이 아니면, 제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일 정도로 자사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오토스에도 인건비 상승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허문영 대표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참여전 여러 곳에 컨설팅과 자체적으로 생산성, 품질, 물류, 시스템 등 컨설팅을 받아 왔으나 일시적인 점 위주로 개선이 진행돼 지속적인 혁신사항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몇 개 부서만 활동했고 전사적인 활동이 제대로 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가하면서 생산성을 비롯해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한다. 그는 “이 지원사업에 정말 신청 및 활동하길 잘했다”면서 “일단 생산성이 올라보게 좋아지고 불량률은 거의 제로(0) 수준으로 감소했다. 무엇보다 기업문화까지 바뀌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지표에 눈에 띄게 개선됐다. 1인당 생산개수가 16.6대에서 사업 참여후 21.9대로 32% 향상됐다. 개당 제조원가도 11% 감소했고, 연구 개발기간도 20% 이상 줄일 수



허문영 오토스 대표이사

생산성 급등·불량률 제로 수준 목표 수립 후 달성 분위기 조성

있었다.

또한 공정상 불량률은 1.9%에서 0.97%로 감소해 불량률 0%대를 기록하게 됐다. 오토스뿐 아니라 협력사에도 개선의 효과가 전파되는 패밀리 혁신이 발생했다. 협력사들은 최소 30%에서 최대 62%가 생산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 대표는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조직문화도 서로 협업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항상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스마트 팩토리 도입 과정에서 세계최고의 제조업인 삼성전자와 협력하면서 다양한 권리, 혁신 노하우를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조업 4.0 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가 받아들이야 하는 제조회경입니다. 스마트공장 도입은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레벨을 올리기 위한 결단입니다.”

화진산업은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산업용, 농업용 필름 등 고도기능성 필름을 주력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폭등하면서 주력 제품이 마스크로 바뀌었다.

또한, 화진산업은 전국인이 마스크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난 2월 말, 마스크 100만장을 홀소팽을 통해 1090원에 판매하면서 착한기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 마스크는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의 연결로 도레이첨단소재로부터 필름을 공급받아 생산한 것이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맺어진 삼성전자와의 인연이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현철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환경의 특성상 대기업의 진보되고 기술 집약적인 시스템을 경험하기 어려웠는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덕분에 삼성전자와 긴 시간 호흡하면서 레벨이 높아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현철 대표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효율적이며 자동화 시스템 구현”이라고 밝혔다.

화진산업의 공장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보니, 교대근무 근무자의 피로누적, 안전사고 발생, 불량률 적재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는 이를보다 간편·효율적이며 자동화된 ‘원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에 지원한 것이다.

화진산업은 3년전에 1차로 스마트공장지원사업에 참여해 기초단계를 구축했다. 그렇기에 2019년에 참여한 2차 사업에는 기업 생산 레벨 상승에 목표를 뒀다. 결과는



이현철 화진산업 대표이사

대기업 첨단기술 시스템 접목 단순노동→지식노동으로 변화

기대보다 놀라웠다. 제품 불량률은 40% 낮아졌다. 부자재 재고관리 또한 30% 이상 개선됐다.

생산공정 중 마스크를 박스에 투입, 포장, 적재 를 자동화해서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했다.

이현철 대표는 “스마트공장은 한번의 투자와 개선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무인화와 일자리를 잃는 노동환경의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질적인 변화를 통해 단순 노동을 지식노동으로 바꾸고 레벨을 올리는데 중소기업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면서 스마트공장 도입을 추천했다.

이상원 기자

리모트미팅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대표 서비스입니다.

www.remotemeeting.com

보안 걱정 없는 웹화상회의 리모트미팅 90% 할인!

15,000여개 기업이 리모트미팅을 재택근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트미팅으로 Zoom OUT 하세요

비대면 화상회의 도입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90% 할인받는 방법

- 1단계 중소기업부가 제공하는 K-비대면바우처플랫폼(k-voucher.kr)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신청합니다.
- 2단계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 (기업 부담 10% 포함) 이내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3단계 K-비대면바우처플랫폼에서 알서포트의 '웹브라우저 확장팩-리모트미팅'을 선택하여 도입하세요.

알서포트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과 사용을 도와드립니다.

☎ 070-7709-0652 / 02-420-1877 ✉ support.kr@rsupport.com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구입 가능한 알서포트의 비대면 서비스 (4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와 화상회의 RemoteMeeting / 원격자 RemoteView / 원격지원 RemoteCall

한은, 기준금리 0.5%로 유지...세번 연속 동결

코로나 확산 탓 선택여지 없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지난 14일 결정했다. 7월, 8월에 이어 세번째 동결 결정이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 3월 16일 '빅컷' (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

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만큼 7월과 8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째 '동결' 외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모든 연체자에 상환유예 적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약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회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이번 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파트너' 출시

기업 AD

주요 질병·상해 맞춤형 보장 건강목표 달성시 5% 환급도

삼성화재는 지난 10월 건강증진형 신상품 '마이헬스 파트너'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요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맞춤형 건강보험으로, 자사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Anyfit)'과 연계해 걸음 목표 달성 시 보장보험료의 최대 5%를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로 돌려준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마이헬스 파트너'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진단, 수술, 입원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맞춤형 컨설팅 보험이다.

이 상품에는 질병후유장애와 질병입통원수술비 보장이 신설됐다. 질병후유장애 담보는 질병으로 3% 이상 장애 발생 시 신체부위별 장애지

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질병입통원수술비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통원 수술을 보장하며, 특히 대장내시경 중 응급을 제거해도 수술비가 지급된다.

암, 뇌, 심장의 3대 중대질환 보장은 기본이다. 진단비의 경우 첫번째 뿐만 아니라 두번째도 보장해 재발 위험까지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뇌혈관질환 진단비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통해 뇌혈관 및 심장질환 도폭 넓게 보장한다.

이외에도 5대(뇌, 심장, 간, 췌장,

폐) 주요기관 질병과 5대(위·십이지장, 결핵, 신부전, 갑상샘, 녹내장) 특정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눈에 띈다. 자주 발생하는 각종 생활위험도 보장한다. 골절, 화상, 김스치료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1억원 한도로 보장한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다양한 비용순해도 선택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마이헬스 파트너' 가입고객이 자사 건강증진 서비스 '애니핏'을 설치, 활용하면 보장보험료의 일부를 '애니포인트'로 돌려준다.

애니핏을 통해 매월 15일 이상 1만 보 달성 시 다음달 보장보험료의 5%를 애니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8000보만 달성해도 3%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단, 해당 서비스는 계약 후 2년간 제공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삼성화재 애니포인트몰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용 자동차보험, 여행자 보험 및 정기보장보험의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